

馮夢龍《賣油郎獨占花魁》와의 비교를 통해 본 李玉《占花魁》*

尹賢淑**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賣油郎獨占花魁》와 《占花魁》 비교
 - 1. 인물형상 비교
 - 2. 작품구성 비교
 - III. 改作意圖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明末清初의 통속문학가 馮夢龍¹⁾(1574~1646)과 희곡 작가 李玉²⁾(1600?~1676?)은 모두 지금의 江蘇省 蘇州 출신이다. 李玉의 출생과 사망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관계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대략 25~37년 정도의 나이 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이 차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개작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³⁾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교통대학교의 해외파견연구교수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국교통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1) 字는 猶龍·子猶. 이외에 綠天館主人·可一居士·無碍居士·顧曲散人·龍子猶·吳下詞奴·墨憨子·墨憨齋主人·茂苑野史·詹詹外史·香月居主人 등의 별호가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喻世明言》·《警世通言》·《醒世恒言》·《墨憨齋定本傳奇》·《太霞新奏》 등이 있다.

2) 字는 玄玉, 호는 蘇門嘯侶·一笠庵主人. 기록에 의하면 42편의 희곡 작품을 지었다고 하나 현재 18편만이 전해지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一捧雪》·《人獸關》·《永團圓》·《占花魁》·《清忠譜》 등을 꼽을 수 있다.

李玉의 《占花魁》는 馮夢龍의 단편소설집 三言⁴⁾ 중의 하나인 《醒世恒言》 3권에 수록된 〈賣油郎獨占花魁〉를 개작한 것이다. 소설과 희곡, 비록 그 장르가 다르지만 두 작품 모두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공작이다. 남자 주인공이 기녀의 처지로 전락한 여주인공의 마음을 얻어 혼인을 하는 기본적인 줄거리는 같지만, 두 작품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작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단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李玉의 《占花魁》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두 작품을 인물형상과 작품구성면에서 비교·분석해보고, 이러한 차이가 작가의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⁵⁾

-
- 3) 예를 들어李玉의 《人獸關》은 《警世通言》 중의 〈桂員外窮途懺悔〉를, 《占花魁》는 《醒世恒言》 중의 〈賣油郎獨占花魁〉를, 《眉山秀》는 《醒世恒言》 중의 〈蘇小妹三難新郎〉을, 《風雲會》는 《醒世恒言》 중의 〈趙太祖千里送京娘〉을 근거로 개작한 것이다. 馮夢龍 역시李玉의 《人獸關》과 《永團圓》을 개작하였고, 이는 《墨憨齋定本傳奇》에 수록되어 있다. 王季烈의 《螭廬曲談》에는 “《人獸關》·《永團圓》·《占花魁》는 모두李玉이 지었고, 이 세 작품은 《一捧雪》과 함께 一·人·永·占이라고 일컬어진다.李玉이 지은傳奇는 이 네 작품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모두《墨憨齋定本》으로 馮夢龍이 개작한 것일 것이다. 당시李玉의 원본이 어찌 간행되지 않았던 것일까! 《人獸關》·《永團圓》·《占花魁》, 皆李玉所撰. 此三種與《一捧雪》合稱一·人·永·占.李玉所著傳奇, 以此四種爲最著名. 但今所見者, 皆爲《墨憨齋定本》, 蓋馮子猶改本也. 豈李氏原本, 當日未經刊行歟!”라는 말이 있다. 이에 근거해 《一捧雪》과 《占花魁》 역시 馮夢龍이 개작했을 것으로 보지만, 王季烈的 말과는 달리李玉의 원본은 전해지고 馮夢龍이 개작했다는 작품은 전해지지 않기에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 4) 《喻世明言》·《警世通言》·《醒世恒言》을 통칭하는 말.
- 5) 본고는 上海古籍出版社에서 2004년에 출판한 《李玉戲曲集》 중의 〈占花魁〉와 人民文學出版社에서 1987년 출판한 《醒世恒言》 중의 〈賣油郎獨占花魁〉를 저본으로 삼았다. 《占花魁》에서 인용한 부분의 번역은 《中國語文論譯叢刊》에 연재한 줄고 〈李玉의 占花魁(1)〉·〈李玉의 占花魁(2)〉·〈李玉의 占花魁(III)〉·〈李玉의 占花魁(IV)〉를 참조하였다.

II. 《賣油郎獨占花魁》와 《占花魁》 비교

1. 인물형상 비교

1) 秦重 · 秦種

秦重과 秦種은 각각 《賣油郎獨占花魁》와 《占花魁》의 남자 주인공이다. 작품 안의 두 사람은 이름·신분·성격 등이 모두 다르다.

《賣油郎獨占花魁》의 秦重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고, 그 아버지 秦良은 13살이 된 秦重을 朱十老에게 양자로 주고 자신은 上天竺寺에 들어가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한다. 朱十老는 秦重을 친자처럼 생각해 朱重이라 개명하고, 金의 침략으로 宋의 수도 汴京(지금의 開封)이 전란에 휩싸이자 그를 데리고 함께 臨安(지금의 杭州)으로 간다. 朱十老 집의 하녀 蘭花는 秦重을 짝사랑하다 거절당하자,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 邢權과 짜고 秦重이 자신을 희롱하고 돈을 훔쳤다고 朱十老에게 모함한다. 이에 朱十老는 은자 석 냥을 주어 秦重을 내쫓는다. 이 과정에서 묘사된 秦重은 총명하고 효성스러우며 성실한 인물이다.

蘭花와 邢權의 모함으로 朱十老에게 불려가 욕을 먹은 秦重은 「이치를 따지자니 가려야 할 是非가 간단하지 않고, 만일 어른이 듣지 않으면 억울하게 나쁜 사람만 될 것」⁶⁾임을 예상해, 朱十老에게 「장사가 잘 안되니 두 사람이 모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邢權에게 가게 일을 맡게 하고, 저는 멜대를 지고 나가 기름을 팔겠습니다. 파는 대로 돈은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⁷⁾라고 말한다. 이는 秦重이 상황 판단이 빠를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도 매우 사려 깊게 대처하여 총명하고 신중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朱十老의 집에서 내쫓긴 秦重은 조금의 원망도 없이 큰 절을 네 번 올리고 대성 통곡하며 떠난다. 秦重은 가장 먼저 친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하지만 찾지 못한다. 이에 秦重은 朱十老에게서 받은 석 냥을 밑천으로 기름 장사를 시작한다. 기름집

6) 馮夢龍《醒世恒言·賣油郎獨占花魁》: 「慾待分辨, 惹起是非不小, 萬一老者不聽, 枉做惡人。」(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48쪽.

7) 《賣油郎獨占花魁》: 「店中生意淡薄, 不消得二人. 如今讓邢主管坐店, 孩兒情願挑擔子出去賣油. 賣得多少, 每日納還, 可不是兩重生意?」 48쪽.

에서는 평소 그가 성실한 사람임을 알기에 좋은 기름을 다른 사람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었다. 기름이 좋으니 사려는 사람이 많고, 싸게 공급받으니 다른 사람보다 이익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게다가 秦重은 기름을 넉넉히 주었기에 그의 장사는 아주 잘 되었다. 秦重은 기름통에 자신의 성씨와 ‘汴梁’(開封의 별칭)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장사를 다니며 계속 친아버지를 찾는다. 이후 蘭花와 邢權은 朱十老가 병이 들자 전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 해버린다. 비로소 秦重의 사람됨을 안 朱十老가 지난 일을 후회하며 이웃에게 秦重을 돌아오도록 설득해줄 것을 부탁한다. 소식을 듣고 돌아온 秦重은 다시 이름을 朱重으로 바꾸고, 朱十老의 병 수발은 물론 정성스레 장례까지 치르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 이러한 과정은 秦重이 효성스럽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占花魁》의 秦種은 대대로 武官을 지낸 가문의 후손이다. 그 아버지 秦良은 현재 統制官을 맡고 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극중에서 秦良은 金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한 황실을 보좌하기 위해 汴京으로 가고, 秦種은 전란을 피해 남하하여 臨安으로 가는 바람에 부자는 헤어지게 된다. 여관에 들어가 묵게 된 秦種은 그의 잘생긴 용모를 보고 반한 계집종 雪梅와 주방 할멈 乚氏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인 朱仁에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그의 권유와 도움으로 기름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과정에서의 두 사람을 비교해보자.

본전이 부족한데 무슨 장사를 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름을 파는 것만이 익숙한 일이었다. 기름집도 대부분 잘 아는 사이이니, 아무래도 기름을 메고 나가 파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였다.(不勾本錢, 做甚麼生意好? 左思右量, 只有油行買賣是熟間. 這些油坊多曾與他識熟, 還去挑個賣油擔子, 是個穩足的道路.)⁸⁾

(小生)매일의 경비를 장사로 꾸려나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生)계게는 석 냥의 노잣돈만 있는데 어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小生)본전이 많으면 크게 하고, 본전이 적으면 작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여관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젊었을 때는 기름을 지고 나가 팔며 생활했습니다. 지금 도구는 모두 있으니, 도령께서 석 냥으로 기름을 사 메고 나가 팔면 생활은 꾸려갈 수 있을

8) 《賣油郎獨占花魁》 49쪽.

것입니다. ……(尾聲)(小生)비천하다 사양하지 말고, 잠시 해보시길. (生)사냥하며 유유자적 보낼 수 있는 때가 오면, (合)평생의 일을 도모할 뿐 생계를 궁리하는 일은 없으리. ((小生)日逐用度, 或者做些生意, 少遣時光, 有何不可. (生)小生止存得三兩盤纏銀子, 那裏做得生意來? (小生)常言道大本大做, 小本小做. 老夫原不是開飯店的, 少年曾挑油擔度日. 如今家伙一一俱在, 官人不如將三兩銀子販些油在裏面, 挑出零賣, 儘堪度日. ……(尾聲)(小生)暫經營, 休辭陋. (生)隨時獵較且優游, (合)那裏是謀道終身食不謀.)⁹⁾

秦重에게 있어 장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출로였다. 단지 어떤 장사를 하느냐가 고려 대상일 뿐이고, 기름 장사를 선택한 것은 경험을 해 본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秦種에게 장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타인으로부터 제안 받아 임시방편으로 장사를 시작했을 뿐이다. 이에 그는 스스로를 「대장부가 곤궁한 처지에 있다가도 부귀영달하게 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니, 기름 파는 일을 한다고 하여 자신을 하찮게 여길 필요는 없다.¹⁰⁾」라고 위안하면서도, 「보잘 것 없는 장사라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까봐 걱정했다.¹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때 秦重은 秦種에 비해 자주적이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賣油郎獨占花魁》에서는 秦重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장사를 시작하고 그 성실성에 근거해 장사에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비해 《占花魁》는 第8齣〈却醜〉에서 雪梅와 乚氏와의 한 차례 해프닝을 통해 秦種이 잘생긴 용모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임을 묘사했는데, 《賣油郎獨占花魁》와 비교할 때 인격의 훌륭함이 전달되기에는 이야기의 설정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 전개 과정역시 단조로워 극적인 재미가 덜하다. 第1齣〈檄禦〉와 第6齣〈萍寄〉에서도 秦種이 등장하지만, 집안 배경에 대한 소개와 전란을 피해 남하하여 여관에 묵게 되었음을 설명할 뿐이다. 이 부분만 본다면 秦種의 성격 특성이 성공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이다. 장사가 자신

9)李玉《占花魁·劫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226쪽.

10)《占花魁·一顧》:「丈夫窮達尋常事, 何必區區獨賣油.」, 239쪽.

11)《占花魁·一顧》:「只是生意微細, 恐人笑恥.」, 238쪽.

에게 있어 유일한 선택이자 가장 자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아는 서민 秦重과 장사라고는 꿈도 꿴보지 못한 높은 가문의 자제 秦種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보일 수 있겠는가? 秦種에게 자발적으로 장사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적극성이나 성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인물의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인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개작이라 할 수 있다.

두 남녀 주인공의 애정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작품 중반부에 접어들면, 신분의 차이로 인한 秦重과 秦種 두 인물의 성격 특징이 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王美娘, 즉 花魁娘子를 보고 연정을 품게 되고, 그녀가 기녀임을 알고 그 처지를 애석해하면서도 같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秦重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도랑의 두꺼비가 백조의 고기를 먹으려는」·「분에 넘치는」¹²⁾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秦種의 대사에서 이러한 표현은 없다. 秦重은 美娘이 기녀임을 알았을 때도 「만약 기녀가 아니면, 나 같은 기름장수가 볼 수나 있겠어?」¹³⁾라고 하는데, 이 또한 秦種의 대사에서는 볼 수 없다. 秦種은 美娘을 「선녀와 인간이 종종 만나고 인연을 맺었지만, 佩玉 소리만 남긴 채 아득히 멀리 사라져버렸네」¹⁴⁾라며 선녀에 비유해 美化하면서도 결코 秦重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美娘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매일 돈을 모으기로 한다. 秦重은 美娘의 기생어미 王九媽의 집에 매일 기름을 가져다주는데, 이 한 집만을 위해 온다는 것은 장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새 판로를 개척해 昭慶寺에도 기름을 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秦種은 美娘을 처음 본 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장사까지 접고 다시 찾아간다. 일 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秦重은 이웃에게 저울을 빌려 무더기로 쌓아놓은 동전의 무게를 달아 은괴 열 냥짜리로 바꾸는데, 소설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상세히 묘사되어 매일 매일 푼돈을 벌며 생활하는 상인으로서의 秦重의 면모가 잘 부각되었지만, 희곡에서는 秦種의 「어제 매일 모아 두었던 돈에서 본전을 제하고, 은행에 가서 방금 은괴 열 냥짜리와 두 냥짜리로 한 개씩 바뀌었습니다」¹⁵⁾라는 간단한 대사 한 마디로 이 과정을 처리하였다.

12) 《賣油郎獨占花魁》: 「癩蝦蟆在陰溝裏想着天鵝肉喫」·「怎麼想這等非分之事」, 52쪽.

13) 《賣油郎獨占花魁》: 「若不落于娼家, 我賣油的怎生得見」, 52쪽.

14) 《占花魁·一顧》: 「遇匆匆仙凡偶親, 杳沉沉珮環歸去」, 240쪽.

秦重과 秦種은 돈을 가지고 王九媽를 찾아가 美娘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하고, 王九媽는 돈에 욕심이 생겨 이를 허락한다. 秦重은 美娘의 방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 산수화·골동품·서책 등이 있어도 「문인이 아니니 감히 자세히 보려고도 않고」¹⁶⁾, 「바깥채가 이처럼 정결한 것을 보면 안채는 분명 화려하게 꾸며졌겠지. 오늘 밤 내가 모두 사용하는 것이니, 하룻밤에 은괴 열 냥은 많다고 할 수 없지.」¹⁷⁾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인 상인 秦重의 성격 특색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秦種같은 인물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자 생각이다. 이에 李玉은 이 부분을 「사방이 온통 책으로 둘러져 있고, 바둑판이 놓여있군. 그윽한 정취가 느껴지는 아득한 비단 침대와 녹색 커튼이 자연스레 드리워진 창문. 그야말로 훌륭한 서재로구나.」¹⁸⁾라고 바꾸었다. 王九媽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美娘에게 그를 소개하며 잘 모시라고 하자, 美娘은 이에 불만을 품고 王九媽와 실랑이를 벌인다. 이 과정을 秦重은 「한 마디 한 마디 모두 들었지만 못들은 척 한다.」¹⁹⁾ 하지만 秦種의 경우, 비록 현재는 한낱 기름장수에 불과하지만 그 본래의 신분과 인격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못들은 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占花魁》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王九媽는 美娘에게 얼렁뚱땅 그의 신분을 속여 넘기고, 美娘은 미심쩍어하면서도 그와 하룻밤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술이 취한 王美娘은 옷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버린다. 두 사람 모두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토물을 옷소매로 받고, 준비한 차를 따라주며 살뜰히 시중을 든다. 잠에서 깨어난 美娘은 그 행동에 감동하고 상대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도 두 사람에게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美娘이 잠들어버리자 王九媽는 秦重에게 「술이 취했으니 좀 살갑게 해봐요.」²⁰⁾라고 하고, 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15) 《占花魁·探芳》: 「昨日將日逐積下之物, 扣出本錢, 到銀鋪內剛剛傾成十兩一大錠, 二兩一小錠.」, 257쪽.

16) 《賣油郎獨占花魁》: 「愧非文人, 不敢細看.」, 59쪽.

17) 《賣油郎獨占花魁》: 「外房如此整齊, 內室鋪陳, 必然華麗. 今夜盡我受用. 十兩一夜, 也不爲多.」, 59쪽.

18) 《占花魁·種緣》: 「你看四壁圖書, 一枰冷玉. 綺榻清幽, 碧窓瀟灑. 眞個好精舍也!」, 266쪽.

19) 《賣油郎獨占花魁》: 「一句句都聽得, 佯爲不聞.」, 60쪽.

20) 《賣油郎獨占花魁》: 「那人醉了, 放溫存些.」, 61쪽.

그러나 秦種은 같은 말에 「어찌 감히」라고 하고, 이어지는 계집종의 「아가씨가 취했으니 마음껏 노 저어 취한 물고기 잡는 격이군요.」라는 말에도 「아가씨, 농담 그만하시고 가서 쉬시지요.」²¹⁾라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다. 秦重은 방에 美娘과 둘이만 남게 되자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누운 채, 왼손은 가슴에 품은 찻주전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은 美娘의 몸 위에 놓은 상태로 있었다.²²⁾ 그러나 秦種은 밤새도록 美娘의 발 뒤쪽에 앉아만 있었다.²³⁾ 극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고 대사나 동작을 약간만 바꾸었을 뿐이지만 군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秦種의 훌륭한 인격이 잘 부각되었음을 볼 수 있다.

秦重과 秦種은 모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이다. 王美娘의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함으로써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 차이로 인해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은 아무래도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李玉의 섬세한 안배는 그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2) 莘瑤琴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은 汴梁에서 쌀가게를 하는 莘善의 딸이고, 《占花魁》의 莘瑤琴은 조실부모하였지만 太監의 자리에 있는 숙부와 함께 사는 양반집 규수이다. 두 사람 모두 용모가 빼어나고,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나 음악에 뛰어났다. 전란을 피해 남하하던 중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은 부모와 헤어지고, 《占花魁》의 莘瑤琴은 하인 부부인 沈仰橋·蘇翠兒와 헤어지게 되면서, 모두 이웃 사람인 卜喬를 따라 臨安으로 오게 되고, 그의 농간으로 기생어미 王九媽의 집에 팔려간다.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은 王九媽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卜喬에게 속은 것을 알지만, 《占花魁》의 莘瑤琴은 줄곧 「왜 이리 방이 많지? …… 저 세 사람의 행동이 뭔가 의심스러워. 말도 두서가 없고, 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²⁴⁾라고 의심을 갖는다. 속은 것을 알게 된 후,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

21) 《占花魁·種緣》: 「豈敢·「美娘醉了, 你做個漫槽搖船捉醉漁罷·「姐姐休得取笑, 你去安置罷.」, 267쪽.

22) 《賣油郎獨占花魁》: 「捱在美娘身邊, 左手抱着茶壺在懷, 右手搭在美娘身上.」, 61쪽.

23) 《占花魁·種緣》: 「坐旦脚後介.」, 267쪽.

24) 《占花魁·落阱》: 「爲何有許多房子? …… 看他三人行藏詭秘, 言語支離, 莫非有些歹意麼?」, 221쪽.

琴은 「대성통곡하지만 王九媽가 설득하자 한참 후에는 울음을 멈추고」²⁵⁾, 《占花魁》의 莘瑤琴은 자신이 양반가의 금지옥엽임을 역설하며 저항하다 뺨까지 맞지만 계단에 머리를 박으면서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생각하면 양갓집 규수의 신분과 그에 맞는 교육을 받았던 《占花魁》의 莘瑤琴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할 것이고, 또 더 큰 저항을 보일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李玉의 개작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莘瑤琴은 이름도 王美娘으로 바꾸고, 기녀로서 갖추어야 할 것도 모두 교육받았지만 손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王九媽는 莘瑤琴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틈을 타 일을 성사시킨다. 하지만 계속 손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자 王九媽는 언변이 뛰어난 劉四媽에게 설득해줄 것을 청한다. 이에 劉四媽는 여덟 종류의 ‘從良’²⁶⁾에 대해 설명하고, 莘瑤琴은 이상적인 상대를 찾아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꿈꾸며 손님을 받기로 한다. 이후 그녀는 명성이 높아져 花魁娘子라고 불리게 된다.

莘瑤琴은 어느 날 술이 취해 밤늦게 돌아와 자신을 기다리는 한 남자를 본다. 《賣油郎獨占花魁》의 王九媽가 그를 비단 가게를 하는 秦小官²⁷⁾이라고 소개하자, 莘瑤琴은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접대할 수 없다고 한다. 명문가의 자제도 아닌 그를 받으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⁸⁾ 《占花魁》의 王九媽는 그를 臨安 명문가의 자제 秦나리로 소개한다. 이는 莘瑤琴의 신분을 고려하여 그녀가 상대하는 인물의 신분을 상향하여 설정한 것이다.

다음 날, 술에서 깬 莘瑤琴은 밤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사정을 묻는다. 그가 밤새 자신을 살뜰히 보살펴준 것과 기름장수라는 것을 알고서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은 이처럼 「충직하고 성실하며, 풍격이 있고, 결점은 덮어주고 좋은 점만 추켜 세워주니,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 평범한 서민인 것

25) 《賣油郎獨占花魁》: 「放聲大哭, 九媽勸解, 良久方止.」, 40쪽.

26) 從良은 기녀가 남자를 만나 기녀 생활을 청산하고 시집을 가는 것을 말하는데, 劉四媽는 이를 여덟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다. 즉, 정말로 시집을 간 경우와 가짜로 간 경우, 시집을 끝내 가지 못한 경우와 무사히 간 경우, 어쩔 수 없이 간 경우와 좋은 기회를 틈타 간 경우, 고통스러워하며 간 경우와 즐거워하며 간 경우.

27) 小官은 직위가 낮은 관리나 젊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28) 《賣油郎獨占花魁》: 「臨安郡中, 並不聞說起有甚麼秦小官人. 我不去接他. …… 不是有名稱的子弟. 接了他, 被人笑話.」, 60쪽.

이 해석해. 명문가의 자제라면 의탁할 수 있을 것을。」²⁹⁾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절반은 이미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집에 있을 때면 오직 그만 생각났다.³⁰⁾ 《占花魁》의 莘瑤琴 역시 「은근히 마음이 끌리고」³¹⁾, 「부귀하고 학식 있는 자들 중에는 절대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³²⁾라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순식간에 가까이할 수는 없다.」³³⁾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신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으니,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은 상대가 서민임을 아쉬워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었고, 《占花魁》의 莘瑤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가까이 할 수는 없다며 이성적으로 그 마음을 제어하려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莘瑤琴은 권문세가의 자제에게 옷과 신발을 뺀 채 눈 덮인 외딴 곳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는다. 권문세가의 자제를 《賣油郎獨占花魁》에서는 福州太守 吳岳의 아들이라 했고, 《占花魁》에서는 樞密使 萬俟卨의 아들이라 했다. 吳岳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萬俟卨(1083~1157)은 南宋 시기의 간신으로 秦檜와 결탁하여 투항을 주장하고 岳飛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占花魁》에서 갖은 못된 행동으로 莘瑤琴을 모욕하는 귀족 자제를 그의 아들로 바꾼 것은, 李玉이 자신의 역사적 인식에 근거해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감정을 이입한 것이고, 莘瑤琴의 신분을 고려하여 상대의 신분 역시 상향시킨 것이다.

이후, 莘瑤琴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기름장수 총각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 이 일로 인해 두 여주인공 모두 상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먼저 청혼한다. 이 과정을 비교해보면,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은 秦重과 다시 밤을 보낸 후 바로 「제가 속마음을 얘기할 것이니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에게 시

29) 《賣油郎獨占花魁》: 「又忠厚, 又老實, 又且知情識趣, 隱惡揚善, 千百中難遇此一人. 可惜是市井之輩. 若是衣冠子弟, 情願委身事之.」, 63쪽.

30) 《賣油郎獨占花魁》: 「心裏已有四五分歡喜了. ……千個萬個孤老都不想, 倒把秦重整整的想了一日.」, 62·63쪽.

31) 《占花魁·種緣》: 「我琴心曲意多牽惹.」, 269쪽.

32) 《占花魁·心語》: 「算來富貴之輩, 文墨之中, 亦絕無此人的了.」, 272쪽.

33) 《占花魁·種緣》: 「憑着恁萬種溫存, 不能個霎時款淡.」, 269쪽.

집가겠어요。」³⁴⁾라고 하지만, 《占花魁》의 莘瑤琴은 秦種과 서로의 집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집안도 서로 비슷하고, 이 넓은 천지에서 고향까지 같은 사람을 만났네. 蛟龍이 강한 비구름 몰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격이로다。」³⁵⁾라는 생각을 한 후 청혼한다. 청혼의 과정 역시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에 비해 훨씬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작품의 莘瑤琴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李玉은 그 신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특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관련 인물의 신분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설 속의 莘瑤琴과 차별을 두려고 했음을 볼 수 있다.

3) 秦良

아들 秦重과 헤어지고 절로 갔던 《賣油郎獨占花魁》 중의 秦良은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만 등장한다. 즉 秦重이 莘瑤琴과 함께 절에 불공을 드리러 왔을 때, 시주할 기름을 담은 통에 적힌 ‘秦’과 ‘汴梁’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상히 여긴 그가 연유를 물어 아들과 상봉하게 되는 부분이다. 작품 전체에서 그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여 언급할 것이 없다. 그러나 《占花魁》 중의 秦良은 〈檄禦〉·〈割僞〉·〈會旛〉·〈榮蔭〉 등의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여 전체적으로 그 비중이 작지 않다. 우선 그를 무관의 신분으로 바꾼 것은 그 아들 秦種의 신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曲海總目提要》에 의하면 秦良은 北宋 시기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洪皓(1088~1155)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³⁶⁾ 洪皓는 南宋 때 금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冷山³⁷⁾에 억류되어 15년 만에 돌아와 당시 제2의 蘇武라고도 일컬어졌고, 이후 直學士에 임명되었으나 집정자를 비방하여 秦檜의 미움을 사 파직되었다.³⁸⁾ 다음은 《占花魁》에 묘사된 秦良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34) 《賣油郎獨占花魁》: 「我有句心腹之言與你說, 你休得推托. ……我要嫁你.」, 68-69쪽.

35) 《占花魁·歡叙》: 「門楣廝衍, 遇天涯雙雙故鄉, 蛟龍佇待風雲壯.」, 280쪽.

36) 「此借用洪皓事.」 19권.

37) 지금의 黑龍江 五常에 위치함.

38) 《宋史》 권373·列傳132 〈洪皓列傳〉 참조 (北京, 中華書局, 1985).

(外) 저는 진량입니다. …… 우리 군대는 구원병이 오지 않아 금나라에 함락되어 冷山에 억류되었습니다. ……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틈을 타 燕山을 벗어나 남쪽으로 가려합니다. ……아! 적들이 쫓아왔네. 어찌지? 빨리 도망을 가야겠군. ……(오랑캐 장수로 분장한 淨과 丑이 무리를 이끌고 등장한다) ……(丑) 성이 무엇이에요? (外) 秦입니다. (淨이 뒤돌아 丑에게) 맞아요! 맞아! 넷째 태자와 혈맹을 맺은 秦檜라는 자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 적들을 교란시키려한다고 들었는데, 이 자가 분명해요. (丑) 넷째 태자의 심복이라면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게 합시다. ((外)我秦良. ……無人救援, 我孤軍傾陷, 被金人拘留冷山. ……巡邏不警之秋, 偷出燕山, 奔回南國. ……呀! 追兵來了, 如何是好? 不免速速逃生. ……[淨·丑扮番將, 領衆上] ……[丑]你姓甚麼?[外]我姓秦.[淨背向丑介]是了, 是了. 聞得有一秦檜, 與四太子歃血爲盟, 遣歸宋家反間, 敢就是他了.[丑]既是四太子心腹人, 不要惹他, 放他去罷.)³⁹⁾

극중의 秦良 역시 冷山에 억류되었다가 탈출했고, 또한 적장의 입을 통해 교묘하게 秦檜가 적과 내통한 사실을 드러내어 두 사람의 관계도 연상될 수 있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분명 洪皓를 염두에 두고 형상화된 인물임을 말해준다.

극중에서 秦良의 등장은 주로 관중에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檄禦〉에서는 金의 공격으로 宋이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음을, 〈北還〉에서는 汴京이 함락되어 徽宗과 欽宗이 인질로 잡혀가고 臨安에 새 왕조가 세워졌음을, 〈剽僞〉에서는 金의 꼭두각시 劉預(1073~1146)가 세운 齊가 楊沂中⁴⁰⁾의 군사에게 패해 멸망되었음을, 〈會旛〉에서는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를 되찾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檄禦〉에서는 전란의 원인과 책임이 徽宗의 정치적 무능에서 비롯되었음을 노골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8대 황제, 즉 神霄玉府 虛淨宣和道君皇帝께서는 蔡京·童貫·楊戩·高俅 등과 같은 간악한 무리들을 신임하셨습니다. 梁師成에게 艮嶽을 만들어 연못을 파고 동산을 꾸미도록 명령해 큰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겨우 萬壽山

39) 《占花魁·北還》 242-243쪽.

40) 楊沂中(1102년~1166)은 송대의 장수로 字는 正甫이고, 지금의 山西省 原平 출신이다. 병법에 뛰어나고, 전란 중에 공을 인정받아 忠翊郎·閣門祇候·榮州刺史·文州防禦使·御前中軍統制 등을 역임했다. 1136년에는 韓世忠을 도와 劉豫를 격파해 널리 이름을 날렸다. 이후 황제의 깊은 신임을 얻어 요직에서 25년이나 있었고, 1166년 65세로 생을 마감했다.

하나 만들면서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만 듣고, 도적떼가 날뛰는 상황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간사한 무리들의 말만 들으시고 金에게 함께 遼를 공격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金이 遼를 멸망시킨 후, 약속을 저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 道君께서 지금의 황제에게 자리를 물려주신지 2년도 못되어, 金이 또 침범을 했고, 근래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변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到第八代，便是神霄玉府虛淨宣和道君皇帝，信任蔡京·童貫·楊戩·高俅一班奸佞。命梁師成建造良嶽，鑿池築園，大興工役。……數載纔成得一個萬壽山，以至萬民嗟怨，盜賊蜂起。又聽那奸臣之計，與金人約會攻遼。誰想金人滅遼之後，背了盟誓……道君禪位今上，未及二載，聞得金兵又分道入寇，日來邊報甚緊）

이 부분은 《賣油郎獨占花魁》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⁴¹⁾ 《賣油郎獨占花魁》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간단히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으나, 《占花魁》에서는 이것을 秦良의 대사로 편입시킨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전쟁의 지휘자이자 충성심이 강한 무장 秦良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은 훨씬 긴장감이 고조되어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李玉은 분명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秦良을 재창조해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걱정하며 불의의 인물들을 질타하는 秦良의 대사 한 마디 한 마디는 모두 李玉의 역사적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占花魁》에서는 주요 각색 못지않은 중요한 임무가 부여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 작품구성 비교

《賣油郎獨占花魁》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짙막하게 화류계의 미담으로 전해지는 鄭元和와 李亞仙의 사랑⁴²⁾에

41) 《賣油郎獨占花魁》: 「話說大宋自太祖開基，太宗嗣位，歷傳眞·仁·英·神·哲共是七代帝王，都則偃武修文，民安國泰。到了徽宗道君皇帝，信任蔡京·高俅·楊戩·朱勳之徒，大興苑園，專務游樂，不以朝廷爲事，以致萬民嗟怨，金虜乘之而起。把花錦般一個世界，弄得七零八落」, 36쪽.

42) 唐代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로 서생 鄭元和가 과거를 보러 長安에 왔다가 기녀 李亞仙과 사랑에 빠진다. 이후, 돈이 다 떨어져 기방에서 쫓겨나자 挽歌를 배워 생계를 이어 나갔다. 어느 날 그의 부친이 挽歌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죽을 정도로 때린 뒤 길에 버린 것을 거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면서, 그 역시 거지로 전락하고 만다. 李亞仙이 우연히 그를 보고 데려와 뒷바라지를 해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게 된다. 鄭元和의 부친

대해 언급하고, 이어서 秦·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부분은 莘瑤琴이 기녀로 이름을 날리는 부분까지, 두 번째 부분은 秦重이 돈을 모아 王美娘과 하룻밤을 보내는 부분까지, 세 번째 부분은 두 사람이 혼인을 하고 부모를 상봉하는 부분까지이다.

《占花魁》는 극 전체의 내용을 개괄한 花引과 상·하권 각 14齣, 모두 28齣으로 구성되어 있다. 秦種과 관련된 부분은 〈檄禦〉·〈萍寄〉·〈却醜〉·〈一顧〉·〈再顧〉·〈探芳〉, 莘瑤琴과 관련된 부분은 〈驚變〉·〈拐給〉·〈落阱〉·〈勸妝〉·〈品花〉·〈心語〉·〈脫阱〉, 秦種과 莘瑤琴 두 사람 모두와 관련된 부분은 〈種緣〉·〈巧遇〉·〈歡叙〉·〈合璧〉·〈會旂〉·〈榮蔭〉, 그 외의 부분은 〈虜焚〉·〈渡江〉·〈塵遇〉·〈北還〉·〈禿涎〉·〈僞冊〉·〈計販〉·〈溺淫〉·〈剿僞〉이다.

秦種·莘瑤琴과 관련된 장면 중에서 《賣油郎獨占花魁》에 없는 부분은 〈却醜〉·〈品花〉·〈榮蔭〉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却醜〉는 秦種의 군자로서의 고상한 인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내용면에서 보면 희극적 성격이 강한 過場⁴³⁾에 불과하지만, 이를 계기로 秦種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후에는 이 새로운 삶으로 인해 莘瑤琴과의 만남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뒤에 올 내용과 자연스러운 연계를 유도해야 하는 기술적인 구성이 요구되는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다. 사실 이는 《賣油郎獨占花魁》에서 蘭花가 秦重을 작사랑하다가 거절당한 부분을 근거로 개작한 것이다. 秦重에게도 이 사건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된다. 秦重이 강한 의지와 현명한 처세로 스스로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불우한 어린 시절과 장사를 통해 얻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란으로 인해 비로소 대중적인 삶을 접하게 된 《占花魁》의 秦種은 똑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분명 개작이 필요하다. 개작을 할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대처 능력이 없는 秦種에게 秦重이 겪었던 모함을 당하고 집에서 내쫓기는 등과 같은 무거운 짐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고전희곡의 초반부는 일반적으로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구성된다. 이 부분이 秦種의 인격을 부각시키는 것에만 중점을 둔 過場으로 구성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개작이라

은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머느리로 맞이한다.

43) 희극에서 앞뒤의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 구성된 간단한 장면.

생각된다. 새로이 등장한 여관 주인 朱仁은 秦種의 과거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이 자연스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된 인물이다. 〈品花〉는 기녀들을 꽃에 비유해 그 등급을 정하는데 王美娘이 못 꽃의 여왕으로 뽑혀 花魁娘子로 불리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이 역시 전체적인 줄거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희극적 성격의 過場에 불과하다.〈榮蔭〉에서는 秦氏 일가가 관작을 제수 받는데, 이 역시 등장인물들의 신분 변화를 고려해 내용만 조금 바꾼 大團圓의 장면이다. 이를 통해 볼 때, 秦種·莘瑤琴과 관련된 장면은 전체적으로 《賣油郎獨占花魁》와 구성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虜禁〉·〈渡江〉·〈塵遇〉·〈北還〉·〈禿涎〉·〈僞冊〉·〈計販〉·〈溺淫〉·〈剿僞〉 등은 모두 《賣油郎獨占花魁》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장면이다. 극 전체에서 약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분량이어서 그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이 가운데 〈北還〉·〈剿僞〉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秦良을 위해 신설한 것이다. 〈虜禁〉·〈渡江〉·〈僞冊〉은 각기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장면이다. 〈虜禁〉에서는 金의 태자와 그 신하들이 등장해 汴京을 함락하고 徽宗과 欽宗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상황을, 〈渡江〉은 康王 趙構(1107~1187)가 신령의 도움으로 진흙 말을 타고 金 군사의 추격에서 벗어나 강을 건너 남하하는 상황⁴⁴⁾, 〈僞冊〉은 劉豫가 金의 조서를 받고 齊의 황제에 오르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외에도 극의 초반부에 해당하는 〈驚變〉·〈拐給〉·〈萍寄〉 등의 장면에서도 秦種과 莘瑤琴은 물론이고 조연에 해당하는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 전란의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하였다. 秦良이 나오는 장면까지 포함하여 극 전체에 걸쳐 시대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란으로 인한 각 계층의 고통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占花魁》가 秦·莘의 애정만을 중심축으로 삼은 작품이 아님을 보여준다.

〈塵遇〉는 莘瑤琴의 하인 沈仰橋와 卜喬의 농간으로 팔려간 그의 아내 蘇翠兒가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다. 이 부분은 이후에 전개될 '小團圓'의 장면 〈巧遇〉를 위해 신설된 복선이기도 하다. 즉 귀족 자제에게 모욕을 당하고 버려진 莘瑤琴이 '우연히' 秦種을 만나고, 또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쉬어가기 위해 들어간 찻

44) 南宋 莘棄疾의 《南渡錄》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널리 구전되어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도 제재로 활용하였다.

집에서 다시 한 번 瑤琴과 하인 沈氏 부부의 '우연한' 상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禿涎〉·〈計販〉·〈溺淫〉은 沈仰橋와 蘇翠兒가 중이 된 卜喬를 다시 만나 지난 날의 원한을 갚는 장면이다.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卜喬는 승려가 되어 우연히 찾 집에 오게 된다. 그는 蘇翠兒를 알아보지도 못한 척하며, 沈仰橋에게 장사 밀친을 주어 멀리 떠나게 한 뒤 그녀를 어떻게 해볼 궁리를 한다. 沈仰橋와 蘇翠兒 역시 그 속내를 짐작하고 계책을 세워 그를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한 뒤 강물에 던져버린다.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李玉의 창작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재로 삼은 것이다. 이에 관한 《曲海總目提要》중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西湖游覽志》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宋代 靈隱寺에는 중이 아주 많았다. 九里松 거리에는 음식점, 향과 종이를 파는 잡화점이 많았고, 여인들은 보통 중들이 밖에서 동거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중이 한 여자를 흠모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매일 절에 돌아올 때면 반드시 연지와 과자 등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손에 든 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이 오래 되자, 여자는 그 뜻을 알아차려 남편과 얘기해 유혹하기로 계획하고 점차 그에게 농담을 건넸다. 중은 아주 기뻐하며 함께 어울려보려고 했다. 여자가 남편이 있으니 어찌 하냐고 하자, 중은 衣鉢을 팔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며칠 후, 남편이 옷을 차려 입고 약속한 날에 길을 떠나는 것이 보였다. 중은 그 날 여자 집으로 가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을 마시고 나서 여자는 그에게 먼저 옷을 벗고 눕도록 하고, 옷은 다락에 가져다 놓았다. 갑자기 세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여자는 남편이 무엇인가를 놓고 가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다. 중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자가 숨을 만한 빈 상자가 있다고 하자, 중은 재빨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자물쇠를 채웠고, 중은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는 남편과 함께 상자를 들어 먼 곳에 버렸다. 나졸이 아침에 그것을 보고 관청으로 들고 갔다. 자물쇠를 열어보니 벌거벗은 중이 있었다. 京尹 袁尙書가 웃으며 '다른 사람의 계책에 걸려들었군.'이라 하고는 연유도 묻지도 않은 채 다시 자물쇠를 채워 강에 던져버리게 했다. 《西湖游覽志》云, 宋時靈隱寺緇徒甚衆. 九里松一街, 多素食香紙雜貨鋪店, 人家婦女, 往往皆僧外宅也. 常有僧慕一婦人, 不得其門而入. 每日歸寺, 必買臘脂果餅之屬, 在手顧盼不已. 如是久之, 婦人默會其意, 語其良人, 設計誘之, 漸至謔笑. 僧喜甚, 謂可諧矣. 婦人曰, 良人在, 奈何. 僧盡捐衣鉢, 使之經商. 數日, 果見整裝, 剋日戒行. 僧於是日到其家, 呼酒設饌, 獻酒交錯, 已而婦令先解衣就寢, 取其衣束之高閣. 忽扣門甚急. 婦人曰, 良人必有

遺忘而歸矣。僧遑遽不知所爲。婦曰，有空籠好避。僧亟竄入籠中。婦遂鑰之，僧不敢喘動。與夫昇於遠路。迨曉，邏卒見之，昇於官府。啓鑰，則一髡裸體在焉。京尹袁尙書笑曰，是爲人所誘耳。勿問，復鑰投諸江.)

《賣油郎獨占花魁》에서는 卜喬가 莘瑤琴을 王九媽에게 팔아넘긴 뒤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占花魁》에서 卜喬를 중의 신분으로 각색한 것은 그의 입으로도 밝히듯 「절에서만은 나쁜 것을 일삼는 자들도 받아주기」⁴⁵⁾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불교계의 비리를 예측할 수 있기도 하여, 卜喬와 관련한 이 장면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당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국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 것은 李玉의 의식 속에는 인과응보의 사상 또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Ⅲ. 改作意圖

馮夢龍이 속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三言의 출간 역시 이로 인한 결과이지만, 문인인 그의 의식 속에서 문학은 결코 유교적 사상과 분리될 수 없었다. 이에 그 또한 다른 문인들처럼 문학의 교화 작용을 중시하였다. 《喻世明言·序》 중의 다음의 내용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지금 說話人이 묘사하면 바로 기뻐하고 경악하며,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노래하고 춤춘다. 이에 다시 칼을 잡고 무릎 꿇어 절하며, 목숨도 재물도 모두 내놓으려고 한다. 겁 많은 자는 용감해지고, 음란한 자는 정숙해지며, 야박한 자는 후덕해지고, 우매한 자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렸을 적에 《孝經》·《論語》를 읽었지만, 이처럼 빠르고 깊이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않았다. 아! 통속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試今說話人當場描寫，可喜可愕，可悲可涕，可歌可舞。再欲捉刀，再欲下拜，再欲決脰，再欲捐金。怯者勇，淫者貞，薄者敦，頑鈍者汗下。雖小誦《孝經》·《論語》，其感人未必如是之捷且深也。噫！不通俗而能之乎?)

45) 《占花魁·禿涎》: 「只有佛門乃是藏垢納污之所」, 248쪽.

馮夢龍과 다른 문인들의 차이라면 그가 교화는 반드시 '情'의 움직임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하여 '情教'를 주장한 것이다. 그의 작품 《情史·序》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情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무릎 꿇어 절하고, 혹情이 없는 사람을 만나 생각과 말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반드시情으로 완곡하게 이끌려고 했으며, 절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만 두었다. ……나는情教를 행하여 중생들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情이 있게 되고, 신하가 임금에게情이 있게 되며, 이것을 여러 현상으로 확대하면 모두 이와 같이 함을 볼 수 있다. (見一有情人, 輒欲下拜, 或無情者, 志言相忤, 必委曲以情導之, 萬萬不從乃已……我欲立情教, 教誨諸衆生. 子有情於父, 臣有情於君, 推之種種相, 俱作如是觀.)

이를 통해 볼 때 馮夢龍이 말하는 '情'은 단지 남녀 혹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윤리, 즉 '理'가 가미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馮夢龍의情教觀에 입각해 볼 때 《賣油郎獨占花魁》는 어떤 작품인가?

사랑에 대한 순수한 감정을 가진 秦重과 어떤 외재적 조건보다 이를 높이 평가한 莘瑤琴의 결합은 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들의 사랑은眞情의 결실이자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眞情을 실천하고 결국 상대를 감동시켜 사랑을 쟁취한 秦重은 성실하고 효성스러우며,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다. 《賣油郎獨占花魁》는 도덕적 윤리를 노골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秦重의眞情에 대한 감동은 그 의로운 인격에 대한 감응도 동반하기에, '情'을 움직여 교화를 꾀려고 했던 馮夢龍의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었을 것이다. 《賣油郎獨占花魁》가 《醒世恒言》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이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李玉 역시 사회에 대한 투철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현실주의적 경향의 작품을 많이 창작했던 작가이기에 희곡의 사회적 작용을 매우 중시했다.李玉의 《萬里圓》 제27齣에 있는 다음의 내용은 그의 戲曲觀을 잘 설명해준다.

회곡 창작은 유희가 아니고 忠·孝를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니, 화류계에 널리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은 것은 짓지 말기를. (宮商譜入非游戲, 爲忠孝傳人而已, 莫作花柳彰聞綺語題.)

이러한 관점을 가진李玉의 입장에서 보면, 秦重과 莘瑤琴의 사랑은 그 眞情이 아무리 남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화류계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자신의 戲曲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馮夢龍이 강조한 ‘情’의 작용을 홀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占花魁·花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뿌리 깊은 사랑의 씨앗 누가 심었나? 秦種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 전해질만 하네. ……화류계에 전해지는 지극한 이치, 진정한 사랑은 조금은 외골수인 법. …… 秦種은 그야말로 사랑에 정성을 다했으니, 기름을 팔며 우연히 그녀를 보고 일 년을 성실히 일했네. (千古情根誰種就, 種情深處堪傳. ……花月場中存至理, 情眞一點偏堅. ……秦種眞情種, 賣油瞥見, 一載勤勞.)

이를 통해 볼 때 《占花魁》의 남자 주인공 이름 秦種은 ‘情種’, 즉 사랑의 씨앗 혹은 사랑에 지극한 정성을 쏟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은李玉 역시 ‘情’의 작용을 인식하고 그것을 중시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占花魁》는 두 남녀 주인공의 신분을 상승시켜 그 사랑을 노래했기에 결국 당시 극단에 존재하던 才子佳人式의 상투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賣油郎獨占花魁》와 달리 莘瑤琴이 秦種의 본래 신분을 알고 칭찬한 것은 순수한 사랑보다 가문을 중시했던 봉건적인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기에,李玉은 馮夢龍보다 훨씬 낙후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⁴⁶⁾ 이러한 평가는 《占花魁》안의 ‘情’은 이미 순수한 모습이 아니고, 윤리화된 ‘情’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⁴⁷⁾

46) 范紅娟 〈市井風貌和文人趣味-李玉和馮夢龍的對話之一〉; 《太原師範師院學報》, 2006년 제5권, 제1기, 87-90쪽 참조.

47) 范紅娟 〈市井風貌和文人趣味-李玉和馮夢龍的對話之一〉; 《太原師範師院學報》, 2006년 제5권, 제1기, 90쪽 참조. /任青 〈試論李玉婚戀傳奇中的‘重理輕情’現象及其積極

李玉의 《占花魁》가 실제로 귀공자와 양갓집 규수의 결합을 묘사한 才子佳人式의 상투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여부는 신분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담긴 '情'의 양상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賣油郎獨占花魁》의 入話 부분에서 鄭元和와 李亞仙의 사랑을 화류계에 전해지는 미담이라고 한 것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眞情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신분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도 眞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賣油郎獨占花魁》와 《占花魁》의 두 여주인공은 모두 '從良'을 통해 기녀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꿈꿨다. 기녀의 입장에서 '從良'의 대상자가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를 희망하는 것은 원래 신분에 관계없이, 현재의 처지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은 평범한 서민 기름장수와 결합하고, 《占花魁》의 莘瑤琴은 양반가의 자제와 결합했다. 이러한 결말로 인해 《賣油郎獨占花魁》의 莘瑤琴은 '從良'의 대상자를 귀족이나 문인으로만 국한했던 기존의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해 순수하게 秦重의 眞情만을 보고 상대에게 먼저 청혼한 것이지만, 《占花魁》의 莘瑤琴은 「집안도 서로 비슷하고, 이 넓은 천지에서 고향까지 같은 사람을 만났네. 蛟龍이 강한 비구름 몰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격이로다.」라고 생각한 뒤 청혼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占花魁》의 莘瑤琴에게는 秦種과의 혼인이 서로 비슷한 집안끼리의 결합이라는 계산과 함께, 秦種이 지금은 기름 장수에 불과하지만 신분이 있기에 언젠가는 포부를 펼칠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秦種이 자신이 원하던 신분의 상대이기에 청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斷章取義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占花魁》의 莘瑤琴은 秦種의 신분을 알기 전에 그에 대해 이미 「지난번 그 기름 장수는 일 년 동안이나 나를 그리워하고 헛되이 밤을 보냈으면서도 너무나 온순하고 자상하며 다정했어. 부귀하고 학식 있는 자들 중에 절대 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⁴⁸⁾라는 인식이 있었다. 귀공자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秦種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자 그녀는 「당신과 저는 헛되이

意義-以《永團圓》·《占花魁》爲例): 《廣西師範學院學報》, 2011년 제32권 제1기, 72쪽 참조.

48) 《占花魁·心語》: 「就是向日那賣油郎, 他結想一年, 空捱半夜, 溫存百種, 憐惜千般. 算來富貴之輩, 文墨之中, 亦絕無此人的了.」, 272쪽.

하룻밤을 보냈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교감을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환난에서 구해주셨으니, 이는 새로 태어나는 큰 은혜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⁴⁹⁾라고 한다. 이후 자연스럽게 서로의 상황을 물으며 실제 신분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 莘瑤琴의 청혼에 정신적인 교감과 秦種의 眞情에 대한 감동이 큰 작용을 했음을 말해준다. 이 점을 흘시하고 단지 신분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청혼했다고 보는 것은 작품 전체의 중심축인 眞情의 작용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

앞에서 인용한 〈花引〉 부분에는 ‘화류계에 전해지는 지극한 이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李玉 스스로 ‘情’과 함께 ‘理’도 작품의 한 중심축으로 두었음을 밝힌 것이다. 《占花魁》안의 ‘情’이 순수한 형태가 아니고 윤리화되었다는 비판은 바로 이와 연관된 것이다. 《占花魁》는 《賣油郎獨占花魁》에 비해 분명 교화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각색은 물론 보조 각색까지 번갈아 전란으로 인한 시대 상황을 묘사하고, 秦良이 시국을 걱정하고 위정자들을 비판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등의 장면을 통합해보면 궁극적으로는 ‘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卜喬가 인과응보에 따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 또한 ‘義’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극 전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대략 삼분의 일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 자신의 戲曲觀을 체현하려는 목적과 관련된 의도적인 개작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占花魁》 역시 《賣油郎獨占花魁》와 마찬가지로 노골적으로 ‘忠’·‘義’등의 ‘理’적 요소를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秦種과 莘瑤琴의 애정을 중심으로 한 축과는 별개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험난한 인생 역정을 더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관중은 혼란한 시대 상황과 그들의 애정을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풍전등화격인 당시의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한 채 그들의 애정 과정을 감상하기에 상황의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그 애정의 眞情 또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李玉의 기술적인 구성으로 인해 ‘지극한 이치’를 전달하기 위해 추가한 부분들은 결코 두 남녀 주인공의 애정의 眞情성을 훼손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眞情을 중심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아 작품의 주제를 확대시켜주었다.

49) 《占花魁·歡敘》: 「我和你一宵虛度, 半載神交. 幸蒙患難周旋, 不啻深再造.」, 280쪽.

IV. 맺는 말

李玉과 馮夢龍이 오랜 기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관점이 같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占花魁》는 《賣油郎獨占花魁》와 기본 골격은 같지만, 두 남녀의 애정 이야기만을 다룬 《賣油郎獨占花魁》에 비해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다룬 내용들을 많이 새로 구성하여 극작의 주제를 확대시켰다. 이는 《占花魁》가 단순한 개작이 아닌 재창작된 작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중심축은 여전히 眞情의 결실인 두 남녀 주인공의 애정을 다룬 부분에 있다. ‘忠’·‘義’ 등의 윤리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신설된 부분들로 인해 ‘情’의 작용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고, 위기에 처한 시대적·사회적 상황이 일으키는 긴장감은 오히려 秦重과 莘瑤琴의 애정의 眞情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李玉의 《占花魁》는 ‘情’과 ‘理’의 조화를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희곡의 사회적 작용을 중시했던 작가의 戲曲觀을 충분히 체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과 희곡은 체재가 다르기 때문에 개작을 할 경우 원작의 내용을 재분배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賣油郎獨占花魁》는 入話 부분을 제외한 세 단락이 모두 한 개의 이야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秦重의 이야기가 위주인 단락에는 그에 대한 모든 상황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占花魁》는 이야기가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각 齣마다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 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위한 복선이 되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며 서로 호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두 남녀 주인공의 애정을 다룬 부분은 내용상 크게 변화가 없지만, 새로 구성된 부분이 전체의 삼분의 일 정도나 되므로 《賣油郎獨占花魁》에 비해 편폭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주인공의 애정을 다룬 부분과 새로 구성된 부분들이 서로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 관중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占花魁》의 전체적인 구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개별적인 이야기의 연계를 위해서도 이를 위한 구성은 물론 대사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안배가 필요한데, 《占花魁》는 소설과 다른 신분으로 등장한 인물들의 성격 특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대사와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히 안배하여 인물의 재창

조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각 이야기의 전개 역시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이는李玉이 숙련된 기술을 가진 수준 높은 희곡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占花魁》에서는 부정적인 일면도 볼 수 있으니,秦種과莘瑤琴의 인물형상 부분이 바로 그러하다.秦種의 경우 장사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끄러워하였는데, 이는 사회계급에 대한李玉의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秦種의 신분에 대해 언급한莘瑤琴의 대사 또한 그러한데, 이는《賣油郎獨占花魁》에서와 같이 먼저 칭찬한 이후에 이 대사가 오도록 구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두 남녀 주인공의 신분적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 개작한 것이지만, 분명 작가의 의식 속에 자리한 봉건 의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작품 전체를 개괄한다면 이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李玉의《占花魁》는 내용과 예술면에서 모두 높은 성취를 이룬 희곡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李玉〈占花魁〉,《李玉戲曲集》,上海古籍出版社,2004.
 馮夢龍〈賣油郎獨占花魁〉,《醒世恒言》,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7.
 抱瓮老人〈賣油郎獨占花魁〉,《今古奇觀》,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8.
 黃文暘《曲海總目提要》,天津市古籍書店,1992.
 馮夢龍〈情史〉,《馮夢龍全集》,上海古籍出版社,1993.
 莊一拂《古典戲曲存目彙考》,上海古籍出版社,1982.
 王季烈《螭廬曲談》,臺灣商務印書館,1971.
 尹賢淑〈李玉의 占花魁(1)〉;《中國語文論譯叢刊》제25집,2009년 7월.
 尹賢淑〈李玉의 占花魁(2)〉;《中國語文論譯叢刊》제29집,2011년 7월.
 尹賢淑〈李玉의 占花魁(III)〉;《中國語文論譯叢刊》제33집,2013년 7월.
 尹賢淑〈李玉의 占花魁(IV)〉;《中國語文論譯叢刊》제34집,2014년 1월.
 李旻雨〈李玉占花魁研究〉;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論文,1985년 11월.
 王瑞宏〈占花魁故事研究〉;國立雲林科技大學 漢學資料整理研究所 碩士論文,2008년 6월.
 黃小蓉〈一悲一喜青樓吟〉;《廣西師院學報》,1999년 제2기.

- 霍雅娟 〈試從《賣油郎獨占花魁》等作品看明代白話小說中的市民意識〉:《赤峰教育學院學報》, 2001年 第2期.
- 范紅娟 〈市井風貌和文人趣味-李玉和馮夢龍的對話之一〉:《太原師範學院學報》, 2006年 第5期, 第1期.
- 范紅娟 〈淡筆輕描和濃墨重彩-李玉和馮夢龍的對話之二〉:《藝術農家》, 2004年 第1期.
- 任青 〈試論李玉婚戀傳奇中的‘重理輕情’現象及其積極意義-以《永團圓》·《占花魁》為例〉:《廣西師範學院學報》, 2011年 第32期 第1期.
- 王濤 〈淺論《賣油郎獨占花魁》中的喜劇色彩〉:《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 2011年 第5期.
- 曹國輝 〈似這般姘紫嫣紅-從莘瑤琴·杜十娘看古代妓女意識的覺醒〉:《哈爾濱職業技術學院學報》, 2009年 第1期.
- 郭學英 〈從杜十娘·莘瑤琴看明代妓女的從良〉,《太原城市職業技術學院學報》: 2004年 第1期.
- 邱四龍 〈淺論《賣油郎獨占花魁》中的藝術特色〉:《中國古代文學研究》, 2010年 第5期.
- 山鄉 〈淺說《賣油郎獨占花魁》中的文化意蘊〉:《集寧師專學報》, 2001年 第23期 第1期.
- 郭敏 〈淺析馮夢龍對杜十娘與莘瑤琴的角色把握〉:《海南廣播電視大學學報》, 2008年 第2期.
- 王春曉 〈李玉《占花魁》傳奇研究〉:《四川戲劇》, 2010年 第1期.
- 趙志成 〈杜十娘與莘瑤琴悲喜劇的內在成因〉:《錦州師範學院學報》, 1999年 第1期.
- 李德第·黃小蓉 〈杜十娘·莘瑤琴悲喜結局的成因〉:《宜春師專學報》, 1997年 第1期.
- 周國鵬 〈試論李玉“一人永占”的藝術特色〉:《蘇州大學學報》, 2003年 第1期.
- 高沁 〈《占花魁》·《賣油郎獨占花魁》的創作差異淺析〉:《重慶科技學院學報》, 2011年 第14期.
- 柳翔浩 〈杜十娘與莘瑤琴不同命運結局的成因探析〉:《山西師大學報》, 2010年 第37期.

【中文提要】

李玉的戲曲《占花魁》是根據馮夢龍小說《賣油郎獨占花魁》改編而成的作品。小說和戲曲講述了同一个故事，其內容都是以男女主角的愛情為中心，但兩都

均有不同之處。《占花魁》不僅限于改編的，還是再創作的藝術作品。

《賣油郎獨占花魁》中男女主角都是平民百姓，而在《占花魁》中將其身份設定為仕宦子弟，男主角秦重也改名為秦種。為符合身份的變化，李玉不僅創造了不少情節，而且細心地安排了可烘托人物性格的細節。劇中人物是以變成了與《賣油郎獨占花魁》的不同的新人物。

值得注意的是，相比《賣油郎獨占花魁》，戲曲《占花魁》增加了很多有關歷史和社會背景的內容。其實，這些都是按照李玉重視教化功能的戲曲觀創造的。但《占花魁》的主要線索，還是圍繞秦種和莘瑤琴的真情。而且真情的作用并不被這些內容所減少，相反，恰到好處的起到了襯托的作用。從另一個角度來看，也可以看到李玉拘泥于封建思想。但并未影響作品的精彩程度，也不能代表整個作品。從總體來說，《占花魁》是一部具有很高的文學成就的作品。

【主題語】

이옥. 풍몽룡, 《점화괴》, 《매유랑독점화괴》, 신요금,
李玉. 馮夢龍, 《占花魁》, 《賣油郎獨占花魁》, 秦種, 秦重, 情, 理,
adaption, Li Yu, Feng Meng Long, edification, ethic

투고일: 2015. 6. 25 / 심사일: 2015. 7. 20~8. 5 / 게재확정일: 2015. 8. 10